*Korean Journal of Polar Research*
*Vol.4, No.1, p.73~85 June 1993*

# 성공적 월동을 위한 바람직한 생활방식

장 순 근

극지연구센터

# Desirable Living Style for the Successful Overwintering at the King Sejong Station

Soon-Keun Chang

Polar Research Center,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Ansan P.O. Box 29, Seoul 425-600, KOREA

**요 약**: 세종기지에서 생활하는 사람, 특히 월동대원들의 바람직한 생활방식을 정리했다. 월동생활이 즐거우면 어려움없이 모든 일이 잘 되리라 확신한다. 그러므로 대장이나 보직자들은 월동생활을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도록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한다. 한편 월동생활은 공동생활이므로 최소의 예의와 기강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하에서의 생활이므로 절제하고 규모가 있어야 한다. 대원간에는 협조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굳은 의지가 필요한 생활이다. 자신과 기지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기지 내외에서의 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열거했다.

기지에 단시간 체류하는 사람이라도 생활규칙이 낯설고 귀찮아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주요어**: 월동생활, 즐거운 생활, 예의, 절제, 협조, 의지.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the desirable ways of life of the overwintering members at the King Sejong Station located in King George Island, South Shetland Islands.

It is generally considered overwintering life as dull, monotonous, and somewhat bored. However, if the overwintering party maintains the high morale in consequence of a happy daily life, all or most of the negative problems are to be defeated or minimized. Various recreations should be offered to decrease the stress due to the overwintering. They may include ski, ice football, ping-pong game, ice-fishing, billiards game, hiking, and quiz etc.

Happy overwintering life may be enhanced by the leadership of the Officer-in-Charge(OIC) of the Station, the good ideas of members, and voluntary cooperation of the participating members. The OIC is the key person who issues all the tangible regulations and directions of the life in the Station. So, it is desired for him to have balance of humanity, as well as generosity, and rigidity to stick to principle. OIC should try to develop fresh and briliant ideas from himself as well as from other members. Study of foreign languages or talking on various topics such as photography, animal observation and/or job-related themes, etc. are desirable. Activities such as regular meeting, language school, or other activities with similar nature should be executed within the working time not to corrode the relax time of members. Religeous meeting is also desirable for believers. Voluntary cooperation rooted from high morale of the members are required for the happy overwintering.

The same ways of living for overwintering members are also applied to summer party and visitors, who are likely to underestimate and/or forg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verwintering party and human activities in the Antarctic.

**KEY WORDS**: overwintering, high morale, voluntary cooperation, good will.

## 서 론

세종기지가 준공된지 만 5년이 지났고 기지에서의 월동연구는 계속되리라 생각된다. 늦은 감이 있으나 월동생활을 비롯해서 세종기지에서의 바람직한 생활방식을 논의하므로써, 차후에 근무하게 될 월동대원들이 보다 보람있는 월동생활을 영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월동에 관한 인간적인 요소에 관해서는 1955~58년 영연방 남극종단탐험대장을 지냈고 영국 남극조사소의 소장직을 맡았던 Fuchs(1963)의 논문이 있다. 세종기지에서의 성공적 월동생활을 위한 인간적 요소에 관해서는 필자의 졸문(1991)이 있다.

과거 월동생활의 자료는 월동보고서(장순근 등, 1991 ; 김예동, 1991 ; 양재삼, 1991 ; 장순근, 1992a ; 김수암, 1993)를 참고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계획에 따르는 세종기지에서의 월동생활의 특징을 소개하고 바람직한 생활방식을 제안하므로 월동대원들이 기지에서 보다 성공적인 월동생활을 하는데 길잡이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내용은 과거 월동생활을 통해서 바람직했고 좋았다는 내용을 모았다. 반면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도 발전적 이해를 위해 언급했다.

원고를 정리해 준 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센터의 최은진씨에게 감사드린다.

## 1. 월동생활의 어려움과 특징

월동생활의 어려움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험악한 자연환경과 낯선 인적구성, 완벽하지 못한 시설과 기지건물을 멀리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성, 또한 한정되어 있는 식품과 오락시설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소수의 대원과 24시간을 같이 살아야 하며 기지주변을 크게 벗어날 수 없고 물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월동생활은 대단히 무미하고 같은 업무의 반복으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웃기지를 방문할 수도 있으나 이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급환의 환자가 생기면 문명세계까지 갔다 올 수도 있으나 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기지에서는 근무시간이나 출퇴근이 정해져 있으나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닌 24시간 근무와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한밤중에 발전기가 선다거나 급수관이 동파한 경우 출퇴근-일과시간-직종을 따져서 대처할 일이 아니어서 정상으로 될 때까지 해당분야 대원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수의 대원들이 한밤중-새벽까지라도 일을 해야 한다. 교대인원이 없다는 점에서 문명세계와는 다르며, 특히 월동생활에서는 공동작업이 많은 바, 이에는 전대원이 동원되어야 한다(비록 공동작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월동대 구성인원의 숫자가 작아서 관계대원들이 작업할 때 여타 대원들의 마음은 편하지가 못하다).

월동생활 내지는 기지에서 눈에 띄는 심리의 하나가 고삐풀린 해방감이다. 대장과 총무는 조금 어려워 하지만, 항상 절대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명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므로 자기행위에 대한 수치심이 없어지고 자제력이 떨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지에 처음 도착하는 경우, 모든 것이 신기해 마음이 들뜰 수 있다. 따라서 대장은 이러한 흩어진 심리를 적절히 인도해 하계대의 연구지원과 기지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월동생활은 최소의 기강이 있어야 하고 규모가 있어야 한다.

기지에서는 사소한 것, 예를 들면 복도를 걷는 습관, 옷이나 신을 벗어놓는 버릇과 세수를 하는 습관 등등 문명세계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일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소한 것이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써야만 하는 것이, 월동생활에서는 작은 것이 커지고 개개인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둑, 화투, 당구, 탁구, 비데오 테이프 시청, 붓글씨 쓰기 등등의 오락과 취미 활동이 비교적 오래 가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월동생활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월동의 긴장은 무기력, 나태, 핑계, 우울, 식욕부진, 식욕항진(체중증가), 소화불량,

불면, 비협조, 자기변명, 반항, 개인 위생상태 소홀 등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2~3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남극의 겨울에도 계속되고, 봄이 된 다음 하계대와 차기 월동대가 오기 직적인 10~11월까지도 계속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다. 월동의 긴장이 남극의 겨울에 최고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으나(Palinkas, 1986), 필자의 경우로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월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성격 가운데 하나가 개인의 지나친 자존심인 오만함이다. 자존심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성격이며, 금전과 함께 인간이 움직이는 가장 주요한 동기 두 가지의 하나라 생각되는 바, 자존심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워도 지나치면 바람직하지 않다.

기지에서는 치과질환의 치료는 비교적 힘이 들므로 치과질환은 기지로 가기 전에 문명세계에서 미리 치료할 필요가 있다. 급성 충수염은 복막염으로 전이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으므로 충수를 제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된다. 아르헨티나의 Melchior 기지에서는 1958년 5월 급성 충수염으로 대원이 사망한 뒤(Antartida, 1984. p.61) 월동대원은 충수 제거가 의무적이라고 한다. 칠레 프레이기지의 병원은 시설이 그런대로 잘 되어 있으나 혈액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보다는 그 병원까지 가는 것이 문제이다. 날씨가 나쁘면 고무보트, 헬리콥터 등이 꼼짝을 못한다.

흔히 생각하듯이 실제 월동생활은 여러가지가 부족한 데에서 생활하므로 인체가 약해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미국 남극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능력은 있으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월동 후에 병원에 덜 입원하는 것으로, 월동대원들이 보다 건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아마도 어려운 월동생활을 이겨내므로 그만큼 신체가 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Palinkas, 1986 ; Smith, 1987). 실제 "인간을 죽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대로 고통을 이겨낸 월동대원들이 더 건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컨데 군대에서 공수부대, 전차부대 또는 해병대 등 훈련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들은 더욱 강한 군인이 된다는 것을 보아서도 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2. 바람직한 월동생활

### 2-1. 즐겁고 다양한 생활

월동생활에서의 단조로움과 무료함을 이기는 가장 주요한 방법은 즐거운 분위기의 창출과 이의 계속적인 실행이라 생각된다. 기분이 좋은 경우 귀찮은 일이 귀찮지가 않으며 힘든 일이 힘들지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월동생활의 초기에는 물자하역, 정리, 하계연구, 기지방문 등등이 있어 바쁘게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남극의 겨울에 들어가면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단조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때에는 월동생활을 특히 즐겁게 보내도록 해야 한다.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방안으로는 단체적인 방법과 개인적인 방법이 있겠으나,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가지 재미있는 일을 끊임없이 생각해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퀴즈, 윷놀이, 낚시, 스키, 등산, 수업, 운동 등등이 있을 것이다. 낚시는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 대회를 연다거나, 운동과 퀴즈 등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2차 월동대는 9월 중순부터 거의 한 달동안 설인경기 대회를 했다. 내용은 마라톤, 핑켈던지기, 스키 … 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대원들이 즐겁게 참여했다고 한다. 이는 무료한 생활을 즐겁게 보내는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실제 2차 월동대 보고서에는 상기기간에 운동하는 것을 월동생활에서 정례화하도록 제안하고 있다(김예동, 1991. p.312).

운동도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으나, 5차 월동대는 "눈나라 이야기"라는 기지 소식을 격주간으로 발행해 즐거운 월동생활을 했다. 내용은 월동관계 사진, 수필, 시, 그림, 단문, 편지 등으로 되어 있으며, 처음에는 돌아가며 편집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전문 편집위원을 두었고, 대부분의 대원들이 투고에 참여했다(김수암, 1993). 글을 쓰고 싶어하는 대원들이 있었고 이를 편집해서 활자화 할 수 있는 능력과 성의가 있어서 가능했겠으나 이도 대단히 좋은 생

활방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연구소에서는 월 1회의 체육의 날이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대원들은 운동을 좋아 한다는 점에서는 기지에서는 주 1회로 추가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게임에는 작으나마 상품이나 메달을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한 부상은 받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준비하는 과정과 주고 받는 감정이 재미있고 유쾌하기 때문이다. 실제 2차 월동대는 앞에서 언급한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준 나무메달은 지금까지도 기지의 벽에 걸려 즐거운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다.

식사하는 분위기를 바꾸어도 대원들은 훨씬 즐거워진다. 예를 들면, 얼음낚시차 나들이 나간 기회에 창고동에서 고기를 구워먹거나, 스키 연습 도중에 설상차에서 김밥을 먹어도, 늘상 식사를 하던 식당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대원들의 기분은 눈에 보이게 훨씬 좋아진다. 이런 점에서 식사하는 분위기를 바꿀 필요는 있다고 확신한다.

대원 대부분에게는 영어화화 공부가 좋은 주제가 되리라 생각된다. 이도 가능하면 수준을 생각해서, 월동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가르칠 사람이 있다면 초급 스페인어 공부로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극대학"등 이름을 적절히 붙여 대원 자신의 관심분야, 예를 들면 기계사용에 대한 안전, 전기상식, 사진촬영 또는 기지에서 관찰-조사한 것을 발표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장순근, 1992a). 연구직에게는 전공공부와 수준 높은 외국어 공부가 좋을 것이다.

개인적인 방법은 무슨 일에든지 관심을 가져서 한가한 시간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는 외국어 공부, 운동, 바둑공부, 붓글씨 쓰기, 자기 전공공부, 번역 등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4차 월동대의 대원들은 10~11월에 목각을 많이 했다. 그중의 하나는 기지 벽에 전시되어 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간도 즐겁게 보낼 수 있고 기념품도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월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지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연구나 일을 생각해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전공 및 일반도서, 시약, 연구기기를 준비해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단지 기지에서는 최신 연구 논문을 훑어 볼 기회가 전무하고 연구잡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제약이 있으나, 이는 본인이 Fax 등 통신시설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에서는 생명을 기르는 것이 감정순화에 좋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무실 한 구석에 작은 화원을 만들거나 책상 머리맡에 양파를 키우거나 숙소에 식물을 키우는 것은 권장할 만하다고 믿는다. 기지에는 40피트 컨테이너 한 대에 부족하나마 온실시설이 되어 있다. 채소를 재배하면 대원들에게 신선한 야채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 만하다. 그러나 아무나 야채를 재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인 실력이나 경험이 필요하다(양재삼, 1991). 야채 재배가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한 반면, 콩나물 재배는 비교적 쉬워서 요리사나 대원이 관심과 성의만 있으면 콩나물은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 콩나물은 손쉽게 기를 수 있는 신선한 야채의 하나라는 점에서 우리 조상의 슬기라는 생각이 든다.

양파는 맛을 내고 튼튼하고 숙소에서 재배가 되는 식물이라는 점에서 기지에서 빈 공간을 이용해서 재배해 볼 만한 식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양파는 보통 뿌리를 먹는 식물이나 기지에서 관심만 갖는다면 키우면서 정서도 순화시키고 잎을 잘라 먹을 수도 있어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필자가 1987년 4/5월 소련기지를 방문했을 때에는 통신장비 등 장비사이의 빈 공간에 사과상자(?)에 흙을 담아 양파를 키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점에서는 파도 재배해 볼 만한 식물이라 생각된다.

다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이 되겠으나 가능하면 일기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의 감정의 변화를 기록해도 좋으나 후일의 자료가 되게끔 감정과 함께 시간과 참여한 사람을 기록하면 좋은 기록이 되리라 믿는다(장순근, 1992c). 논문을 정리하는 것과 번역이나 글을 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나, 여기에 몰두하면 개인적으로 월동생활이 대단히 유익할 수 있고 좋은 결과도 맺으리라 확신한다(박병권, 김예동, 1991 ; 박병권, 양재삼, 1992 ;

장순근, 1993a,b). 실제 월동생활은 출퇴근이 필요없고 전화, 내방객 등 조용한 시간을 방해하는 요인이 적어 극지에서의 생활은 문명세계에서의 생활보다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몇 배의 효과가 있다고 확신한다.

## 2-2. 예의를 지키고 기강이 있는 생활

월동생활은 공동생활이므로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고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소의 예의와 기강은 있어야 한다. 기강을 유지하는 방법의 하나가 숙소에서 취침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밥은 나가서 먹어도 잠은 집에서 자라"는 것은 가정생활의 경우이겠으나, 기지에서도 취침은 숙소동에서 해야 한다고 믿는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숙소동이 아닌 연구동, 발전동, 사무실, 비상숙소 등에서 혼자 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부터 사무실 옆에 침실이 있다면(러시아기지나 중국기지의 경우처럼) 문제가 다르겠으나, 우리기지의 경우는 다르다, 군대에서도 일반적으로 파견나간 부대의 군인이 기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란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속성이 있으며, 틀에서 벗어나서 틀속에 있듯이 생활한다는 것은 지극히 힘들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유의할 사항이 대장은 대원들이 정해진 숙소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부대원이 밤늦게까지 소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강을 유지하는 방법의 다른 하나가 일과 시간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다. 기상, 식사, 근무, 취침 등의 기지운영의 기본이 되는 시간을 무엇보다도 정확히 지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의, 작업, 비데오 테이프 시청, 청소 등등의 약속한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데오 테이프 시청은 대원 상당수가 좋아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하는 것이, 시간에 맞춰서 오는 대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데오 테이프 시청 시작 시간 전에 몇 명의 대원이 자의적으로 비데오 테이프를 시청하는 경우 시간에 맞추어 오는 대원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 또한 비데오 테이프 시청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공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같은 계통, 예를 들면 운동은 매주 월요일, 교양물은 수요일 등등 이렇게 요일을 정하면 그 요일에 따라서 관심을 갖는 대원이 보러오게 된다. 특히 비데오 테이프는 흥미, 발간시기 등을 고려해서 재미없거나 오래된 프로는 월동생활 초기, 즉 덜 무료할 때 보고, 재미있는 것은 생활이 보다 무료하고 단조로울 때 시청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주방도 가능하다면 요리사 외에는 출입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대개의 대원들의 손에 익지 않은 개스곤로와 식기 등 주방시설을 흩어놓을 가능성도 있으며 주방은 요리사만의 사무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신의 일상 버릇, 예를 들면 사무실에 옷을 걸어놓거나 현관에 신을 벗어 놓는 버릇, 세면과 목욕 버릇, 식사습관에서부터 휴게실과 숙소에서 쉬거나 청소하는 것, 물건을 치우는 버릇 등등이 언제나 다른 사람의 눈에 좋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아가서 공공장소에서 양말을 벗는 것, 낭하를 시끄럽게 걸어가는 것, 계단을 쿵쿵거리며 오르내리는 것 등등이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태도로 우선 생각된다. 세종기지의 숙소는 고상식 건물이므로 계단을 오르내릴 때와 낭하를 걸어갈 때에는 건물이 상당히 진동한다.

연구동에서 화투 또는 트럼프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는 주지 않을지 모르나 연구실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몇몇 대원들이라도 연구동에서 밤 늦게 멋대로 놀이를 즐긴다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시무식,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은 당연히 휴일로 해야겠으나, 그에 앞서 간단하게라도 기념식을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점이, 인류문화사의 발전을 살펴보면 인지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형식도 그에 따라 발달했다고 한다. 민속의 날, 추석, 현충일, 어린이날 등 한국에서의 휴일에도 간단한 차례나 식을 한 뒤에는 당연히 휴일이 되어야

한다.

대개의 대원들이 아침에 기상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육성으로 기상시간을 알리는 방법은 좋지 않고,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대원들을 기상시키는 방법은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다. 음악은 발전동에서 숙직을 하는 대원이 너무 시끄럽지 않게 틀면 좋다. 점심이나 저녁식사는 요리사가 육성으로 알려주며 기상요원은 아침, 점심, 저녁의 3회 정도는 기상현상을 간단히 게시하는 외에 필요에 따라 갑작스런 강풍, 기온 급낙, 폭설 등에 대한 방송경고도 해야 한다.

아침식사는 생활습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극지생활에서는 아침식사가 절대 필요하다. 이유는 식품이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아침을 결식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제 극지-월동생활은 문명세계에서 보다는 확실히 힘든 것이며, 이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충분한 식품을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 뿐이다. 이런 점에서 대원들이 아침식사를 빠뜨리지 않도록 관련 보직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상시간이나 아침식사를 소홀히 하고 일과에 임할 경우 오전 일과 나아가서 오후 일과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활의 리듬을 깨뜨린다(기지의 식단에서는 비타민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대로 지급되는 비타민을 복용해야 한다).

오전일과를 유쾌하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침식사시간 이후 일과시작 전에 짧으나마 모임이 적절하다. 그 전날 밤에 받은 연구소 소식, 뉴스 또는 날씨나 업무 협조를 한다는 점에서 절대 바람직하다.

흔히들 취침시간을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도 기지에서 오래 생활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취침시간도 지켜야 한다. 자신의 생활리듬도 유지하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취침시간의 준수는 필요하다.

야식은 야간당직 외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이유는 야식급식에 따르는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면이 생기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6시나 7시 정도에 저녁을 먹은 후에 야식을 먹는다면 밤 11시나 12시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 시간에 야식을 먹게되면 취침시간은 빨라도 1~2시간 이후가 되리라 생각된다. 취침이 이렇게 늦어질 경우 다음 날 아침 기상이 문제가 될 것이고, 오전일과 나아가서는 오후일과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육군의 일상생활은 미국 육군의 일상생활과 같다고 생각되는 바, 육군에서도 야식을 급식하지는 않는다. 펄펄한 젊은이들에게 야식을 급식하지 않는 것이 국방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체생활에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리듬을 깨뜨리는 부작용 때문이라 믿는다. 뿐만 아니라 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손에 익지 않은 개스곤로를 취급하고 식기를 세척, 정리해야 하며 요리사의 정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야간당직인 경우에는 적당량의 급식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술은 긴장을 풀어주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심해지면 좋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음주장소와 음주시기 및 소비량을 적당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술이란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마음에 드는 곳에서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점에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으면 좋겠으나 음주는 기지의 안전과 기강유지와 직결되는 문제로 제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음주장소가 연구동, 발전동 등의 업무나 기지의 안전과 직결된 장소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식당이나 휴게실에서 일과시간 외에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마실 것 등이다(그러나 예외는 있어서 가끔 열리는 디스코 파티에서는 파티장소인 기계동 2층에서 술을 마셨다). 또한 술을 마시게 되면 술-대화-흡연-노래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숙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다른 대원에 대한 휴식과 기지의 안전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절대 금지해야 한다. 저녁식사 시간의 소주 또는 맥주와 저녁식사 이후 휴식시간의 맥주는 유쾌한 분위기 형성에 절대적이었다. 월동의 긴장이 높아갈 때에는 대원들의 의견을 들어 1~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술을 조금은 많이 마시고 노래를 해 긴장을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적당히 마시고 노는 것은 대원 거의 모두가 좋아하는 일이므로 이런 일을 반드시 적절히 개최해야 한다. 물론 이런 일이 기지 운영이나 기강 유지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누구나가 자신은 술을 잘 마셔서 아무리 취해도 큰 문제없다고 자신하겠으나, 대취하는 경우에는 실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우선 자신이 스스로 자제한 다음에는 보직자들이 절제시켜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 번쯤은 틀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관대함이 필요하다).

대장은 기지에 기강이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생활을 긴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 마음가짐이 해이하게 되면 생활도 흩어지거니와 사고가 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군대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마지막에 몸조심하라"는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 2-3. 규모있고 절제하는 생활

요사이는 우리의 물질생활에 상당히 여유가 있으나, 극지에서는 규모있게 생활하고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다. 물, 전기, 휴지, 식품, 생활소모품에 복사지도 아껴써야 한다. 이들 소모품이 부족하면 구매에도 시간이 걸리겠으나 운반이 쉽지가 않아 당장 해결되지 않는 데에 따르는 고통이 우선 자신에게 닥친다. 이런 점에서도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물을 비롯해서 생활물자를 아껴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기지의 경우는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해수를 담수화해서 급수하므로 담수 생산장비의 적정한 사용이라는 점에서도 절수는 절대로 중요하다(장순근, 1992a). 경험으로 보면 기지의 담수화가 두 대를 하루에 8~10시간 가동하는 경우 3,000리터 정도가 생산되며 13~15명의 대원이 일주일에 한번씩 목욕과 세탁을 하는 경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담수화기가 성능이 좋다고 무리해서 담수를 생산하는 경우, 담수화기가 정지되어서 고생할 수도 있다(양재삼, 1991). 기지에 있는 인공호수인 현대소에서 전열기를 이용하여 일년내내 급수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생각된다(김예동, 1991). 전열기로 현대소의 얼음을 녹여서 급수하는 경우 전열기 주위 20~30cm까지는 얼음이 녹으나, 이후 전열기에 눈과 얼음을 공급하는 일과 전열기를 철저히 방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장순근, 1992a). 기지주변에는 분진과 공해물질이 전연 없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과 세탁을 해도 몸과 옷이 크게 더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세종기지의 실내, 특히 숙소의 습도는 낮아서 40%정도로, 대단히 건조하다는 느낌이 든다. 습도를 높이고 시원한 기분을 갖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수건을 물에 적셔 물을 짠 다음 줄에 널어 놓거나 전열기에 올려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라 생각된다. 창문을 열어놓는 방법은 우선은 시원해 좋을 수 있으나 에너지의 낭비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습기를 이용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다. 잠들면 인간 생체리듬도 고요해져 활동이 작아진다는 점에서 취침때에는 실내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자신의 건강이나 기지운영면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방법이다. 취침때 실내온도가 높으면 실내가 건조해지고 코나 입의 점막이 건조해지며 답답해진다. 뿐만 아니라 신체리듬도 상당한 활동을 하게 되어 몸이 가볍지 않고 피곤해진다(실제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짧다). 물론 너무 춥게 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숙소는 말할 것 없고 사무실에서 나올 때에도 에너지 절약-물자절약-기지유지 경비절약이라는 점에서 전열기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다. 규모있고 절제있는 생활이 단순히 물자를 아끼는 이상의 생활로 인생을 성실히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종기지의 경우 우편물이 배달된다. 신문은 4월 이후에 들어서는 월 1회 정도 모여서 배달되는 바 한꺼번에 열독하기 보다는 적당히 나누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흩어지지 않게끔 스테이플러로 한 쪽을 찍은 다음 날짜별로 읽을 경우, 덜 무료해질 수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처음에는 "신문마저 통제하느냐?"며 반발도 있었으나, 곧 모든 대원들이 신문 나누어 보기의 장점을 알았다. 반면 월간지와 잡지는 도서실에 비치해서

보고 싶은 대원들이 보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간 시간절약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나 기지에서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 2-4. 협조적인 생활

기지에서는 아무리 궂은 일이라도 자신의 임무이면 우선 자신이 선선히 처리해야 한다. 무슨 이유를 붙여서 회피하거나 분담을 요구할 경우, 여타 대원들의 감정은 나빠지기 쉽다. 우선 자신이 열심히 한 경우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교전통사상이 강해서 나이 차이가 긍정적인 면도 야기시킬 수 있으나 부정적인 면도 야기시키리라 생각된다. 연장자로 존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연소자가 직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나이에 상관없이 그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이 못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보다 성숙하고 이성적인 인간이 되고 월동생활이 원만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84. p.83).

발전동-기계동은 기계를 감시하고 화재를 예방해야 된다는 점에서 24시간 사람이 근무해야 한다. 가용인원과 작업을 고려해서 하루 2교대 또는 일주일 교대로 생활했으면 한다(경험으로 보면 매일 교대는 피곤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으며 3교대는 생활에 리듬이 깨어져 좋지 않았다). 당직대원에게는 숙직 전날의 오후일과와 숙직 다음날의 오전일과는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교대시 주간근무가 8시간이 아닌 12시간 근무해야 된다는 점이 있다. 통신실은 밤 12시 정도까지만 지키면 좋다는 생각이 든다. 24시간을 지킬 수도 있으나, 통신실까지 당직을 하는 경우 당직이 너무 잦아진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연구소에서의 별도 연락이 있다면 대장이나 해당되는 대원은 새벽 3~4시라도 대기해야 한다.

청소, 회의, 모임 등 반 업무적인 성격이 있는 일이라도 가능하면 일과 시간에 수행해 대원들의 자유시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기지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으나, 일과 후에라도 요리사, 숙직자 등은 쉬는 시간이므로 급한 경우(특히 오전시간) 외에는 방송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일, 기지 개소기념일, 추석, 민속의 날, 성탄, 동지(6월 21~22일), 기지도착, 기지출발, 방문객 내방 등등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식단을 다양하게 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해야 한다. 단지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요리사가 힘들지 않도록 대원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흔히들 단결이 좋은 것인 양 생각되나, 자칫 잘못하면 파벌조성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대원들은 직종이나 소속에 따라 크게 연구직-비연구직, 연구소를 포함한 기관소속-공채된 인원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이외에도 몇 명만이 모일 명분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구분해서 뭉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고립된 생활에서의 단결은 내부분란만 조장할 뿐이며, 숫자가 많다고 뭉치는 것은 기지에서는 다수의 횡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수결로 해결되는 것 보다는 협의로 해결되는 것이 낫다.

기지에서는 야외에서의 단체활동을 예정하는 경우, 그 성공여부는 날씨에 따라 좌우되므로, 정한 일자나 시간 보다는 날씨를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

대원 가운데 기독교신자가 있다면 종교적 신념도 보호받을 권리라는 점에서 일요일마다 짧게라도 예배를 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 2-5. 굳은 의지가 필요한 생활

월동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의 하나가 생활리듬을 깨뜨리는 것이다. 특히 할 일이 없거나 남는 시간을 유효하게 쓸 굳은 계획이나 의지가 없으면 나태하게 되어 생활리듬을 잃게 된다. 예를 들면 낮잠을 자면(일일이 금지시킬 수 없다) 늦게 잠들 것이며(따라서 야식 생각이 난다) 늦게 일어나게 될 것이며 아침식사도 반갑지 않을 것이며(밥을 남기는 것은 요리사의 감정을 자극하고 식품과 잔밥을 처리하는 일과 예산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전일과 시작도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는 기지에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 무료하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의사의 지적수준에 맞는 일을 찾는 것도 좋고 아니면 문명세계에서는 의사로서 하기 힘든 일을 한 번쯤은 몸소 경험해 본다는 점에서 낯선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용접, 기계수리 등은 좋은 주제가 될 것이다. 그러한 육체적 일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생활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든다.

극지생활에 절대 필요한 것이 개인의 굳은 의지이다. 특히 월동생활에서는 출퇴근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단순한 업무가 반복되므로 남는 시간이 많아서 이 시간을 적절히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개인의 굳은 의지와 노력뿐이다.

그림 1. 일과시간표 및 계절별 활동의 한 단면

매 일
07 : 00 기상-기상방송 : 음악
07 : 30 아침식사-식사방송 : 육성
08 : 00 오전일과 시작, 매일 회의 : 소식, 업무협의
~
12 : 00 오전일과 끝, 휴식
12 : 30 점심식사-식사방송 : 육성
13 : 30 오후일과 시작
~
17 : 30 오후일과 끝, 휴식
18 : 00 저녁식사-식사방송 : 육성
19 : 00 비데오 테이프 시청
23 : 00 취침 : 휴게실 정리

매 주
업무일지 결재-(주회의)
청소-숙소, 사무실, 공동장소
게임, 운동, 퀴즈, 놀이, 산보, 소풍, 방문 등등
공부-영어, 스페인어, 남극대학
예 배

매 월
월회의-월간보고서 제출
(봄~여름-기지주변 청소-환경보전 및 안전교육, 월간 주요업무회의-주간 시간절약제 도입, 45°W 표준시 사용)
(가을~겨울-안전교육-주간 시간절약제 도입, 60°W 표준시 이용)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기지의 일과시간표 및 주간-월간-계절별의 생활계획은 그림 1로 예시하고 있다.

## 3. 준수사항

자신과 기지의 안전을 위해서 기지에서의 활동 준칙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지내에서 준수하고 유의할 사항과 야외활동에서 준수할 사항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세종기지가 1988년 2월 준공된 이래 서서히 장비가 낡아가면서 화재는 특히 무섭고 위험하다. 화재는 월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으로 평소에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방화와 관계된 규정이나 금연규칙은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모두가 바라지 않는다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는 기계와 시설의 부분에는 부단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양재삼, 1991. p.263-264). 가끔 기지를 방문하는 외국의 헬리콥터로부터는 반경 3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항공유는 쉽게 인화되므로 실제 헬리콥터는 기름덩어리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대장은 화재의 위험을 상기시켜 대원들이 방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총무는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대원들의 어려움을 파악해야하며 대장과 자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대원들이 술을 좋아한다고 술을 단기간에 소비하면 바람직하지 않고 총무가 이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분 소비량을 하루, 이틀에 소비하면 나머지 시간은 술없이 보내기도 유쾌한 것이 아니므로, 일주일분을 두 번정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 등이다. 또한 월동 전반기에 공급된 주류 거의 전부를 없애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아직까지 그러한 예는 없었다). 이런 점에서 술 뿐 아니고 커피, 설탕 등의 기호품과 일부식품도 해당되리라 믿는다. 경험으로 보면 대원들이 좋아하는 술(예 : 서양맥주나 위스키, 흰 포도주 등은 인기가 높다)은 먼저 마시므로 좋아하는 술과 그렇지 못한 술을 적절히 섞어서 소비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심리가 묘해서 식품이 많다면

먹지 않고, 적다면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물자, 특히 기호품과 식품의 소비에도 유의해야 한다.

요리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미각과 대원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조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정성이 필요하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식품이 부족하고 콩나물 외에는 신선한 야채가 없다는 점에서, 요리사에게는 극지생활은 어려움의 연속이다. 따라서 조리는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정성이 필요한 직책이다. 하루 세끼니 조리만하면 그만이라거나 식품이 없어서 조리가 안된다고 하기 보다는 부족하나마 머리를 짜내어 대원들이 식욕을 잃지 않도록 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월동생활은 언제나 계획적인 것은 아니기에 일상생활 외에 가외 노동이 생기더라도 식사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짜증을 내지 않고 싫어하는 기색을 보여서는 안된다. 요리사는 빵, 인절미, 식혜, 음료수, 간식 등을 적당히 개발하고 수시로 찾아오는 외국손님과 늦게 들어오는 대원들에게 항상 성의를 다해서 대접해야 한다. 야채의 보관은 요리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의 하나라 생각된다. 우리 배추와 비슷한 칠레의 원주민이 재배한 배추를 신문지로 싸 놓으면 보존이 어느 정도 더 된다고 하니, 이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양배추의 보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겨울내내 출입문 앞에 키가 넘게 쌓이는 눈도 매일 아침 치울 성의가 있으면 다시없이 좋겠다.

의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진료실의 관리, 특히 습관성 의약품의 관리이다. 대원들이 단순해 중요한 약품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무심한 대원들이 의사 몰래 약을 복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환자의 심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의사의 무관심한 말 한마디에 자극받은 대원이 의사 몰래 수면제를 과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의사는 필요하다면 공동작업에 스스럼없이 참여해서 여타 대원들과 어울릴 필요도 있으나, 의사로서의 적절한 권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적어도 병실에서는 복장을 단정히 한다든가 하므로써 의사의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의사가 너무 권위주의에 빠져 대원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의사는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원들에게 비타민을 먹으라고 권유하면서 자신이(무슨 이유에서든지) 먹지 않으면, 의사의 말은 권위와 신용을 잃게 된다.

야외활동의 안전으로는 두 명 또는 그 이상 단체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지역이 좁아도 혼자서 행동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원들은 기지를 떠날 때, 행선지와 돌아올 시간을 통신담당 또는 당직자 또는 총무에게 반드시 밝히고 떠나야 한다. 또한 목적지에 닿아서는 이 사실을 기지로 통보해야 한다. 고무보트로 세종기지를 떠나거나 또는 타 기지에서 세종기지로 출발할 때에도 반드시 무전기로 그 사실을 기지의 통신담당 대원에게 알려야 한다. 밖으로 나간 대원이나 고무보트가 예정된 시각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통신담당은 반드시 이에 유의해야 한다. 도착이 예정된 시간 보다 현저히 더 늦어질 경우 기지에서는 심상치 않은 무엇을 예상해서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기지를 출발해서 외국기지로 가는 세종기지의 대원이든 외국기지의 대원이든, 출발하게 되면 통신담당 대원은 이 사실을 외국기지로 통보해 외국기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게끔 해야 한다.

고무보트를 운행할 때에는 기상에 따른 운행여부를 승복해야 하며, 운행할 때에는 귀찮아도 반드시 방수복이나 구명복을 입어야 한다. 고무보트를 운행하는 대원은 나침반과 성능이 좋은 전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월동대원, 특히 고무보트 운행관계 대원은 기지에 도착 즉시 기지주변의 해안지형을 살펴 눈에 익힐 필요가 있다. 기상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으므로, 외국기지 방문시에도 기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외국기지 대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곤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지를 떠나기 전에는 준비가 되는 대로 여분의 피복과 여분의 식품도 준비해야 한다. 세종기지에

서의 여름의 기상은 변화가 심하며 겨울은 추우나 비교적 안정이 된다. 반면 환절기는 흐리고, 바람이 강하고, 날씨가 나쁘다는 점에서 고무보트, 설상차 등의 운행과 외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남극에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는 불행한 일이 없어서 다행이나, 발생할 수 있는 생존상황에 대비를 해야 한다(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안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설상차, 짚차, 스키두 등 차량과 고무보트를 운행해서는 안되며 고무보트에는 승선해서도 안된다. 문명세계의 규정이 보다 더 엄격하고 정확하게 준수되어야 할 곳이 극지이다.

대장은 대원 가운데에는 간혹 현금, 여권, 비행기표 등 귀중품을 본인이 보관하지 못하고 보관을 의뢰하거나 또는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우나(친한 것과는 다르다), 월동생활을 대단히 부담스레 생각해 자신의 행동을 극히 자제하거나 인내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니면 반대로 월동생활을 너무 즐겁고 명랑하게만 보내려는 가벼운 생각을 하는 대원도 있다.

대장이나 보직자는 기지주변의 위험한 상황, 예를 들면 일기와 해상상태의 변화, 해빙의 상태, 폭설풍 등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대원들의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기타 기지대장의 행동방식에 대해서는 필자(1992b)의 졸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 4. 남극환경보호

우리나라의 남극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남극환경보호인 바, 기지에 있는 동안 남극의 환경을 보호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환경보호에는 크게 폐기물의 처리와 야생생물의 보호로 요약할 수 있다.

불에 타고 무독인 물질, 예를 들면 종이와 기름 먹이지 않은 나무는 태울 수 있으나, 불에 타기는 하나 유독한 물체(플라스틱, 비닐, 폐유, 고무, 스치로폴)를 태워서는 안된다. 사진현상액도 방류해서는 안되며 바테리도 매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 가연성 무독물질을 태운 재와 상기 유독물질은 유리, 철물 등 타지 않는 물체와 함께 남극 밖으로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다(그림 2).

그림 2. 남극기지에서의 폐기물 관리

기지에서의 폐기물 관리(야외조사반 포함)

1) 고형폐기물
   ① 불연성(화학약품 포함, 단 바테리는 제외) : 남극 밖으로 운반
   ② 바테리 : 남극 밖으로 운반
   ③ 가연성
      • 나무 : 소각-2단계 고온소각기 사용(배출연기 성분검사)-재는 남극 밖으로 운반
      • 윤활유 : 남극 밖으로 운반
      • 플라스틱, 고무제품, 특수화학처리목재 : 남극 밖으로 운반
      • 이방동물 유체(가금류 포함) : 소각
2) 액상 폐기물
   ① 인체 배설물, 생활 하수, 음식 찌꺼기 : 잘게 갈아서 배출
   ② 사진현상액 : 재처리(은성분 회수) 후 배출 또는 남극 밖으로 운반
3) 방사능 물질 : 남극 밖으로 운반
4) 플라스틱 포장지 사용 억제
5) 납이 포함된 연료 또는 취화에틸렌 또는 또는 염화에틸렌 포함연료 사용 억제

이런 점에서 기지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절대 필요하다. 단지 문명세계에서 분리수거가 우리의 손에 익지 않아 철저한 분리수거가 어려울 것이나 분리수거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폐기물처리 담당대원들의 업무가 많아질 것이며 그 영향은 다른 대원들에게도 파급되기 때문이다. 한편 폐기물처리 담당대원은 그 업무가 자신의 임무임을 알아서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반면, 쓰레기 분리수거에는 기지 방문객을 포함하여 기지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특히 주방, 식당, 휴게실의 쓰레기 분리수거도 중요하며 숙소와 연구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지부근의 동식물보호도 대단히 중요하다. 기지에 처음 오는 경우 모든 것이 신기하에 보여 일부 사람은 해표나 펭귄을 안고 사진을 찍는 수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는 야생동물 학대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도 생물인지라 몸에는 작은 기생충이 많이 있으며 이들이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다.

또한 남극의 여름에는 조류들이 부화하는 시기이므로 이들 군서지에 너무 가까이 가서 생태를 교란시켜서는 안된다. 약간만 방심해도 보호색 때문에 구별이 모호한 알이나 새끼를 밟을 수도 있고, 사람이 어미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새의 울음소리가 비정상이면 그 부근에는 알이나 새끼가 있다는 뜻이므로 우선 대단히 조심해서 그 부근지역을 피해야 하며 막대기를 휘두르지 말고 머리위에 세워서 공격을 피해야 한다(새가 공격한다고 해서 돌멩이를 던지거나 막대기를 휘두르는 야생동물보호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식물도 밟아서는 안되므로 식물밀집식생 지역은 피해야 한다.

기지에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들도 남극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피우고 남은 담배꽁초나 담배갑을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된다. 강경환경보호단체(그들은 불시에 남극기지를 사찰한다) 보고서에는 기지 부근에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다는 언급이 보이는 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소한 것이라도 그들은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5. 논 의

기지에서의 생활은 펭귄, 빙산, 스키 등등 환상과 낭만만의 생활은 아니며, 거의 처음 만나는 여러 사람이 낯선 환경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어려운 요소가 더 있다고 생각된다.

문명세계에서 사소한 개인적인 생활습관이 기지의 안전과 남극환경 보호라는 커다란 현안문제에 따른 연구소의 규정이나 기지대장의 기지운영 방향과 다를 수 있다. 이때 자기의 습관을 고집한다는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라 생각되므로 귀찮고 괴롭더라도 규정이나 방향을 따르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간섭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사소한 규정위반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우리나라에서 나는 산불의 반 이상은 무심히 버린 담뱃불에 기인한다는 것은 사소한 한 예에 불과하다). 그렇지 못하면 규정을 지키는 대원이 언제나 많아서 자신이 궁지로 몰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규정이 도저히 납득 못할 경우라도 일단 이를 지키면서 이야기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지키기 어려운 규정은 아예 이를 무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는 공동생활에서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포함하여 대개의 일이 자발적인 일이므로 너무 강요한다는 성격이 짙어지면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장의 철학이나 신념 또는 대원들과의 합의에 따라 생활은 조정될 수 있으나, 누구나가 기지에서의 생활이 공동생활이라는 점을 기억해서 서로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생활규정이나 습관의 거의 대부분을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의 양식에 따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며, 기지에서의 금지규정은 최소로 제한했다고 이해해야 한다. 기지에서 규정을 지킨다는 것 또는 규정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괴로울 수 있다. 그러므로 월동을 시작하기 전에 공동생활에 바람직하지 않은 자신의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결 론

생활이 명랑해 사기가 높아지면 모든 규정은 자발적으로 지켜지고 협조적이 된다. 그러므로 대장 이하 전대원들은 명랑한 생활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편, "인간이 말을 물가로 끌고 올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월동생활에서는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단한 관심과 사색이 필요하다.

월동생활내지는 기지에서의 생활은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대장의 의지나 생활태도가 기지에서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대장을 비롯한 나이 든 월동대원은

기지에서의 생활규칙이나 환경보호 등이 낯설고 괴롭더라도 참고 협조해야만 한다.

하계연구원이나 기지의 방문객들은 무심한 자신의 행동이 월동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름대로 생활질서가 잡힌 월동대의 질서를 깰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귀찮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지의 규칙을 준수하고 협조해야 한다.

외국기지 방문시에도 그들의 연구를 방해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고 그 기지부근의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우리기지에서의 생활태도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김수암, 1993. 대한민국 제 5 차 남극과학연구단 월동연구대 보고서. 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센터. 준비중.

김예동, 1991. 남극 세종과학기지 월동보고서 : 제 2 차 월동연구대(1989.1~1990.1). 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센터, 418p.

박병권, 김예동, 1991. 남극과학. 도서출판 서울 컴퓨터프레스, 245p.

박병권, 양재삼, 1992. 일반해양학. 정문출판사, 459p.

양재삼, 1991. 남극 세종과학기지 월동보고서 : 제 3 차 월동연구대(1990.1~1990.2). 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센터, 328p.

장순근, 1991. 성공적 월동을 위한 인간적 요소. 한국극지연구소 2(2) : 117-124.

장순근, 1992a. 대한민국 제 4 차 남극과학연구단 월동연구대(1990.12~1992.1) 보고서. 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센터, 664p.

장순근, 1992b. 세종기지 대장이 되려면. 해양연소식, 86호, p.4.

장순근, 1992c. 하얀 지평선. 수문출판사, 405p.

장순근, 1993a. 새로운 남극이야기. 수문출판사, 429p.

장순근, 1993b. 찰스 다윈의 원전 "비글호 항해기" 완역본. 전파과학사, 인쇄중.

장순근, 김동엽, 이방용, 정호성, 1991. 제 1 차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 월동조사대 보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해양연구소 보고서. BSPE00160-279-7, 313p.

Antartida, 1984. Demografia Antartica Argentina. Antartida No.13 : 60-64.

Fuchs, V., 1963. The human element in exploration. British Antarctic Survey Bulletin, 1 : 1-8.

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84. Survival in Antarctica. 101p.

Palinkas, L.A., 1986. Health and Performance of Antarctic winterover personnel : A follow up study ; Aviation, Space and Environmental Medicine. 57 : 954-959.

Smith, E., 1987. Winter in Antarctica : Health despite discomfort. Psychology Today, March 1987. 60-61.